죽는 놈이 글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러겠습니까!

☞ 17면에서 계속

무전통신 줄과 천안 줄과 천이 줄과 타심 줄 또는 숙명 줄, 신족 줄 이것이 천판 동시에, 동시에 이렇게 있다 이거야. 뭐를 하나 하려도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해서 내가 이게 가망이 있다 할 때 책정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거든. 여러분 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눈 나가는 데 귀도 나가고 귀 나가는 데 생각도 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오관을 통해서 이 한 모습에 전자력이나 통신력이나 이런 것이 여기에, 또 영사기나 이런 것이 여기 포함해서 한 팀, 팀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책정기다, '내가 정한다' 이러는 거는, 즉 말하자면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누진으로 이렇게 연결됐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관을 굴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다섯, 다섯, 다섯 이렇게 있지마는 책정기에서 부리는, 다섯 개에 종합된 줄은, 왜, 요새 전깃줄 속에 여러 가지 넣고 이렇게 한데 합치지? 그거와 똑같아, 응?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만이 이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 많은, 다섯 개씩 줄을 넣은 것도 있고 일곱 개씩 줄을 넣은 것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보당이 다 거기에 통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동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만약에 저 달나라로 통신을 했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일도 없는데 괜히 통신을 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무뜩 어떠한 생각이 났을 때 그건 상대가 되는 거야. 그럴 때에 이것은 '아하, 거기?' 하면 이 다섯 개의 줄, 하나의 줄 속에 다섯 개씩 여섯 개씩 일곱 개씩, 이 줄이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거라, 응? 포함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 달을 위에서 동시에 보는 거야. 동시에 듣고 동시에 알고, 동시에 보고 동시에 책정을 하고, 거기가 전자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이런 것을 동시에 보는 거. 다섯 가지 문제를, 동시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서 항상 안으로 들이고 내고 하는, 안팎에 있는 이 보당만 가지고 씀씀이를 써 본다면, 자기가 하고 지켜보고 그렇게 씀씀이를 쓴다면 이게 유년 가다 보면 이게 참선이요, 나 찾는 길이요, 나를 발견하는 아주 쉬운 길이요, 또 그 대신에 내가 몸을 이끌어 가는 데도 아, 세 치만 알아도 내 몸은 건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데, 이거 건강하게 못 끌고 가?

그래서 나를 갖다가 '아이 참, 귀찮다. 좀 편안하게 조용히 있어야겠다.'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어르르르르 하면서 아주 딱 그냥 노그라지는 그런 편안한…, 왜, 마취하지? 그러면 편안하게 그냥 있듯이 좀 저거 하면 그렇게도 편안히 좀 있다가 또 저거 하면 '아, 나 일어나야지.' 그러면 그대로 생기가 날 수 있고 이렇게 자유자재할 수 있게끔도 되는 것이 바로 여기의 문제다 이거야. 그 문제도 되지마는 자기의 모든 것이 일어나고 가라앉고 하는 거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진 거야, 이게, 응?

여러분이 자식들을 기르고 남편을 섬기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스님네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 도리를 모르면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허허,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못 쓰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지.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거리로 다니게 되고. 뭐, 집에 들어가 자질 못해서 거리로 다닌다는 게 아니야. 집이 있어도 그건 거리 노중에서 돌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 집이 없고 내 주인이 없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만날 얻으러 다니지 않으면 안 되고, 노예 문서를 항상 짊어지지 않으면 안 돼. 노예 문서를 태워 버려야 되지.

그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그것은 중이라고 해. 중!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그 심월, 심월봉에서 불이 그냥 번쩍 나면, 그냥 번개같이 번쩍 나면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서 붙는 대로 타 버리는 거라. "붙는 대로 타 버리니 무엇이 붙을 거 말하고 나서 얘기해야겠군. 그래서 여기는 지능 줄이라든가,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우주 줄도 있고 지능 줄도 있고 지혜 줄도 있고 참 그, 물리가 터지는 줄도 있고 뭐,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아.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한 줄도 있고 또 용궁 줄도 있고 또 관세음보살 줄도 있고 지장보살 줄도 있고 다 있어. 여기는 뭐, 없는 게 없이 있어, 이 줄이! 여기 이 보당에 전부 달렸다 이거야, 안팎 보당에. 안으로는 안으로대로 쓰면서 바깥으론 바깥에 대로 여여하게 쓴다 이거야. 안팎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중이라고 할 수 없어. 옷을 입어서 중이 아니야. 머릴 깎아서 중이 아니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건지고자 해서 이 도량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이야. 만약에 중이 돼 가지고 한 도량에서 요 절간을 마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걸 운영하고 먹고살기 위함이요, 남한테 절이나 받기 위함이요, 목탁이나 치기 위함이라면, 허허, 차라리 이런 노릇을 하지 않는 것이 당당할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 여기는 안 돼. 왜? 눈 뜬 사자라도 허점이 있을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허점을 노리는 그 왜, 쪼끔 저거 해 가지고 괜히 몽둥이나 들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렇다고 몽둥이 맞을까 봐 그러는 건 아니야. 그런 걸 다…. 예를 들어서 본래에 이 달은, 본래 달은 있되 달은 없는 거야. 본래 없는 달인데 어떻게 몽둥이가 거기 있겠어? 붙을 게 뭐 있겠어? 본래 없기 때문에 그 또한 본래 없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 우리 자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참선이라는 거, 즉 행선이라는 거, 이름 붙이기에 달린 거지 그게 다 이름이라고. 여러분도 내가 말하는 거를 천차만별로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할 테죠. 그런데 그것이 깨달았든 깨닫지 않았든 요렇게 빠르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활용해 가면서 참선이고, 자기를 발견하는 데에 요렇게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더디다는 거라, 응?

이것도 더딘데 야, 줄줄이 줄줄이 이 바깥에 있는 세포의 모든 것까지 다 배우려면 일생을 통해도 다 못 배워. 이 바깥에 있는 학의 문제라든가 경전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걸 배우려면, 여기 걸 다 배우고 나서 보면 벌써 이 몸은 없어져 버려, 응? 그래서 나는 죽어서 천당에 가려고 이거 하지 않아. 난 내가 지금 알고 지금 하기 위해서지 내일 생각 안 해. 난 본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제껴 놓고 봐도 제껴 놓을 게 없고, 바로 봐도 바로 놓은 게 없어. 야, 어떻게 보면 거꾸로 섰고 어떻게 보면 바로 섰고, 그러니까 바로 선 것도 없고 거꾸로 선 것도 없어. 그러니 우리가 무루의, 무(無)의 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어저께 저녁에도 미국에서 "스님, 이 머리가 이렇게 정상이 아닌데 이걸 좀 돌봐 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지만, 만약에 인간으로서의 사랑, 의리와 그 참다운 둘이 아님을 내가 몰랐다면 어찌 그런 사랑과 의리가 있으며 내 몸과 같이, 내 아픔과 같이 생각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어떠한 병이라면 의사가 돼 주고 가난하다면 관세음이 돼 주고 어떠한 판결의 문제가 있다면 판사가 돼 주고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러니 "당신은 밀이면 밀, 보리면 보리라 이렇게 가려서 말을 해라." 할 때 나는 "한 찰나에 찰나 고개에서 보리 맛도 좋고 밀 맛도 좋은 것을, 이 둘을 어떻게 가려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더라." 그럼 두루뭉수리가 아니냐? 그런데 이거 밀 맛 보고 난 뒤에는 벌써 이건 없어진 거고 이건 보리 맛 그냥…. (녹음 안됨) … 돌아가는데 어떤 거를 겨냥해서 이게 맛이 좋다 할까? (중략)

사람은 죽으나 사나 밀고 나가는 인내가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과 애절한 그 인간미가 있어야 돼. 정직한 인간미! 난 솔직한 얘기지 사람사람이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마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가 자기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요, 자기 마음이 아는 것을 우주간 법계에서 아는 거라. 진실되고 진실치 않고는 자기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주간에도 알고 남들도 알아요.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안다면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 너무나 멋진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법망에, 수없는 그, 갈갈이 헤어날 수도 없는 법망에 우리의 근원이 거기에 다 연결이 됐다는 그 사실을 아신다면 참 너무도 묘법이요, 그렇게 광대무변한 법이 없는 거예요. (중략)

언젠가 한번 사월 팔일이 돼서 "이건 촛불이 하나도 없구먼!" 했더니 촛불이 왜 없느냐는 거야. 허허허. 그런데 촛불 켠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천 명 이상이 켰는데. 이거 되겠어요? 그런데 올해 촛불 켠 걸 보니까 아, 많더군그래. 응? 허허허…. 참 기분 좋았어요. 저 산을 바라보니까, 등을 내려다본 게 아니라 저 산을 바라보니까 그 산봉우리에 화광이 비추더구먼그래. 마음들이 한데 모아져서 봉화불이 켜지듯이 이렇게 켜지니 얼마나 좋을까? 넋을 잃고 바라본 것도 바로 내 거울이라.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과 내 마음의 거울과 같이 동시에 반사가 되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두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따져. 비구니 비구, 무슨 중생 부처, 보살 법신 뭐, 요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그게 막혀서 공부를 못해. 그 일일이 막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누. 이것이 색과 이름에 자꾸 끄달리기 때문이라. 그걸,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죽으라고 죽으라고 그래도 안 죽어. 죽는 놈이 글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여자 따지고 남자 따지고 이러겠어? 죽은 놈이!

그러면 오늘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죽으나 사나 밀고 나가는 인내가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과 애절한 그 인간미가 있어야 돼.
정직한 인간미!

※위 법문은 1986년 6월 2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